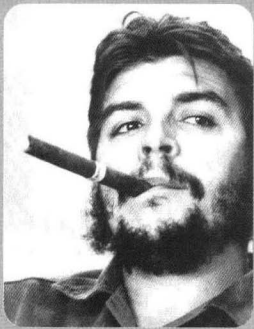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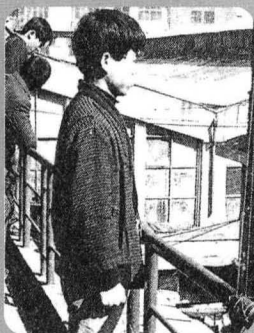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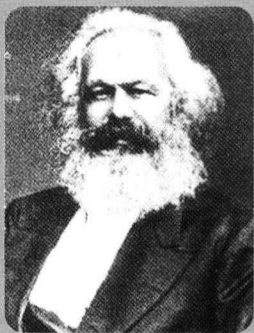


역사와 예술의 증인 만들기, 평전출판의 세계

국내 평전출판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평전의 주인공은 유명 역사가, 혁명가, 작가, 의사, 노동운동가, 페미니스트, 배우, 뮤지션까지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로 확대돼 양질의 텍스트로 생산되는 추세다.

4월, <출판저널>은 인간의 존귀함이 강조돼야 할 이 시기에 인간에 대한 관심과 인간을 둘러싼 역사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평전시장을 둘러본다. 1990년대 초부터 꾸준히 성장해 온 평전시장의 성과를 돌아보면서 한국인과 외국인의 평전 불균형 현상을 지적하는 것은 물론 평전에 담지 못하고 놓쳤을지 모르는 역사 속 인물들을 찾아본 것은 평전 장르의 도약을 위한 고언의 한 장치이다. 역사와 예술, 문화를 완성한 인간들의 자취를 증언하는 다양한 평전을 통해 삶의 이정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우리는 바란다.



평전 저자가 말하는 평전의 매력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평전과 전기를 구별하나, 나는 어떻게 구별되는지 잘 모른다. 전기는 인물의 객관적 사실을 주로 서술하고, 평전은 작자의 주관에 개입된다는 정도의 구별인 것 같으나, 그 구별은 그리 명확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나로서는 그런 구별을 하지 못하고, 또한 하지도 않는다. 주관 없는 전기란 있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 평전과 전기를 구별하지 않고 말하되, 편의상 평전이라고 한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쓴 점에서 차이가 없다. 그러나 상세한 연보 작성 정도로 씌어지는 것은 평전은커녕 전기도 아니다.

아마도 평전의 저자로 우리에게 가장 저명한 사람들은

프랑스의 톨랑이나 오스트리아의 츠바이크 그리고 미국의 스톤일 것이다. 그들이 쓴 무수한 평전은 그들의 소설 이상으로 유명하고, 심지어 톨랑의 경우 그의 소설도 평전의 소설화에 불과하다고 생각될 지경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 탓인지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평전이 거의 없다. 그래서 평전 불모지라고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찰이 가능할 것이나 아마도 우리의 글쓰기와 책읽기에는 여전히 문제가 많은 탓이 아닐까? 어쩌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얇은 탓이 아닐까? 게다가 위인전 정도의 아동물 수준으로 여겨지는 탓이 아닐까?

그런 상황에서 대학에서 노동법을 가르치는 내가 어

박홍규_영남대학교수

평전으로 사귀 나의 '친구' 들, 그들이 들려주는 시대와 사회상

쩌다가 평전을 쓰게 된 것은 참으로 터무니없는 일이어서 이런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 몇 번이나 고사했으나, 이미 몇 권을 썼으니 그 느낌을 솔직히 말해 본다. 최근 평전 쓰기에 대한 전문적인 책도 나온 것 같으나 나는 그런 책을 읽어본 적이 없다. 따라서 지극히 비전문적인 아마추어의 글쓰기임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그러나 아마추어로서의 글쓰기가 평전이기에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리라. 나는 에드워드 사이드가 말하는 아마추어로서의 지식인론에 동의하고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나, 평전 쓰기만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평소 평전 불모에 문제의식을 느껴 평전을 쓴 것이 아니고, 또한 평전 쓰기를 업으로 하겠다고 작정해서 쓴 것도 아니다. 그냥 혼자서 재미있게 읽은 19세기 영국의 모리스라는 사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한 것을 우연히 책으로 낸 것이 그 시작이었다. 현대 디자인을 비롯한 공예와 건축을 개척하고, 시인이자 소설가이며, 사회주의자였던

모리스는 우리에게 각 분야에서 단편적으로 이런저런 책에서 단지 몇 줄씩 소개되었을 뿐, 그 삶의 전모가 소개되지 못했다. 요컨대 그는 우리에게 무명이었고, 지금도 그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는 성인은커녕 위인에도 속한 적이 없다.

그러나 모리스라는 한 평범한 인간이 보여주는 다양한 삶의 무수한 조각들을 모자이크하여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만들어 보는 평전 쓰기는 나에게 엄청난 지적 모험이자 즐거움이었다. 동시에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을 예술, 그것도 공예나 디자인 그리고 건축과 합일시키는 한 인간의 고뇌와 노력은 그 나름으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나에게 던져 주었다. 또한 당연히 그것은 그가 살았던 19세기 영국이라는 시대와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뜻했고, 이를 통해 우리 시대와 나라를 재조명하게 해 주었다. 이후 쓴 평전들도 기본적으로 같은 매력을 나에게 주었다.





그 후 나는 주로 두 가지 이유에서 평전을 썼다. 즉 우리에게 소개될 필요가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소개되지 못하거나, 많이 소개되었지만 다른 관점에서 소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인물들에 대해 쓴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무명의 모리스를 비롯한 역시 무명 화가 도미에, 무명 교육가 페레르 등이고, 후자의 경우는 화가인 반 고흐와 고야, 음악가 베토벤, 작가들인 카프카, 오웰, 카뮈, 루쉰, 그리고 사상가인 프롬 등이다. 후자들의 경우 종래 과도하게 위인으로 신비화되거나 왜곡 또는 단순화된 것을 나 나름으로는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다양하게 접근하고자 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이미지를 거부하고, 언제나 내 나름의 새로운 이미지를

과 학문을 했다고 믿는다. 특히 그들은 권력이나 권위에 철저히 저항했다는 점에서 나에게 매력이 있었다. 나는 그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씌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나에게 평전은 역사, 지리, 정치, 사회, 문화다. 나는 한 인물의 삶과 작품을 통해 그 시대나 나라를 이해하고자 한다. 나의 시도가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나로서는 그런 배경과 요소의 이해 없는 평전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평전은 형식이 한 인물사이나, 사실은 그 시대사이고 사회사이며 당대 인간들의 복수 평전이다.

나는 평전을 쓰기 전에 반드시 내가 구할 수 있는 그 인물을 둘러싼 모든 자료를 섭렵하고 내가 찾을 수 있는 한 열심히 내 발로 찾아본다. 그들이 산 곳을 가보면 우선 신비화가 없어져서 나름의 성과가 있다.

평전을 쓰면서 어느 책에서나 밝힌 이야기지만, 나는 내가 읽을 수 있는 외국서 평전을 모두 참조하고 적당한 것

더하고자 노력했다. 신비화된 것을 깨뜨리고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재현하여 그들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도 평전 쓰기의 매력이었다.

즉 나는 위대한 인물의 위인전 쓰기는 애초부터 거부하고, 특히 그 신비화나 영웅화를 거부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친구라는 입장에서 썼다. 가령 반 고흐 평전의 제목을 《내 친구 빈센트》라고 붙여 가까운 친구 이야기를 하듯 썼다. 사실 모든 평전의 제목을 '내 친구' 식으로 붙이고자 했다. 나는 친구라는 입장에서만 그들의 예술이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내가 쓴 인물들은 하나같이 보통 사람이었고 보통 사람들을 위해 살며 예술

이 글을 쓴 박홍규는 1952년 태어나 영남대학교와 일본 오사카 시립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뒤 창원대학교 교수를 거쳐 영남대학교 교수로 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영국 노팅엄대학교,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에서 법학을 연구했으며 일본 오사카대학교, 리츠메이칸대학교, 고베대학교에서 강의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전공인 노동법 외에 헌법과 사법개혁에 관한 책을 썼고 《법은 무죄인가》로 백상출판문화상을 받았다. 이 밖에 윌리엄 모리스, 빈센트 반 고흐, 프란시스코 데 고야, 프란츠 카프카, 조지 오웰, 알베르 카뮈 등의 평전을 썼고 미셸 푸코, 에드워드 사이드, 머레이 북친 등의 책을 번역했다.

을 번역하고자 했으나, 우리 독자에게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 스스로 썼다. 물론 우리 전문가가 쓴 적이 없는 탓이기도 했다. 가령 반 고흐나 고야, 또는 베토벤 평전은 이제 우리 자신에 의해서도 씌어짐직 한데, 여전히 번역만이 많다. 나는 제발 우리 전문가들이 우리 독자를 위해 우리 상황에 맞게 이제는 많은 평전을 쓰기를 권유한다.

나의 그런 다양하고 자유로운 평전 쓰기가 과도한 서양 신비화나 이상화 파괴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나 작품이 우리에게 피부로 느껴져 친구처럼 다정한 벗이 되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평전 쓰기는 여전히 나에게 매력적이다. **✎**